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 강원랜드 포함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정양석(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1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물론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실무협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서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명칭과 관련해 '원래 원내대표간 합의했던 명칭이

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했다'며 '(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그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다른 공공부문 같은 경우 범위를 일정정도 좁히는 것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강원랜드 포함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서 원내수석은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동 갖고 합의 "빠른 시일 내 운영위 운영 공감...일정은 아직"

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유치원3법과 관련해 서로 마음을 열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고 했다.

다만 정 원내수석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합의사항이 없다. 각 당 입장만 서로 확인했다'며 "국정조사는 특위가 전부 구성돼 간사단 회의를 열어 조사 계획서(채택)를 착수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진척을 내달라고 요청했다"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20일 예정 돼 있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말했다"고 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유 원내수석은 '최대한 빨리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

고 얘기했다'며 "원내지도부가 상인위에서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는 만큼 상인위가 임시국회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서 원내수석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합의된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협의할 수 있도록 입법TF가 동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비상설특별특위, 정개특위, 사법특위 등은 얼마 못하고 일몰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 본회의에서 연장기한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유 원내수석은 운영위 소집 여부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는 (여야) 공감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합의를 못 봤다'고 했다.

서 원내수석도 "입법처장 임명, 비상설특위 연장을 하려면 운영위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의했다"며 "야당은 다른 현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요구한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의 바른미래당 탈당·자유한국당 복당 공식선언 기자회견이 마친 후 이 정보위원장 직무 유지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바른미래, 떠나는 이학재에 "정보위원장 반납하고 가라"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18일 이학재 의원에 대해 '정보위원장직 반납'을 요구하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미래당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입장 발표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 앞문에서 바른미래당 당직자와 당원 10여명이 파켓을 들고 항의하기 시작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이들에게 떠밀려 2분 넘게 피신해야 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갖고 한국당으로 이동하면 바른미래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육위원장 한 자리만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8자리로 늘게 된다.

당직자들은 "위원장자리 놓고 가라" "정보위원장 들고 먹튀하는 건가" "배신자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등을 외치며 거칠게 정보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을 향해 물려드는 당직자들과 기자들을 피해 기자회견장 바로 옆에 있는 기자실로 20여 분간 피신한 뒤 국회를 빠져나가야 했다.

양건호 바른미래당 보건위생위원장은 "사퇴서를 받아야 한다. 참피하고 양심도 없는데 정보위원장 자리도 사퇴하지 않고 나가니 먹튀"라며 "지도부는 (학의 사실을) 모르고 너무 화가 났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정보위원장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과 미래를 뒤로 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지만, 이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위원장 지리는 반납하는 게 도리"라며 "그 (정보위원장) 지리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서 확보했고 당이 이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서 행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 역시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다"면서도 "상임위원회의 위임장 뜻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이다. 본인한테 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놓고 가는 게 정치도의상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절이 덮고 가는 법은 없다"며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다만 이 의원은 선례가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적 변경과 관련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당직변경으로 인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려든지 사퇴했다든지 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국회 관례를 떠난 요구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장병완 "4·19 혁명세대 예우 미흡...현 세대 의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8일 '4·19 혁명세대의 명예를 드높이고 노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현 세대의 의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4·19혁명과 민주화 산업화 융합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민족의 얼을 제대로 선양하고 그 동안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세계에 자랑해도 한참 모자랄텐데 국가적 예우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내일 모레면 4·19 60주년이 된다"며 "경제적으로 성장 동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시점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의 융합의 힘으로 제2의 도약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지원 "손학규 '이학재 발언' 지당...비례3인방도 보내줘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학재 의원의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과 관련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지당하고도 지당하다"고 반응하며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명의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손 대표가 이 의원 탈당

에 대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 '절에서 덮으려고 준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한 말씀은 지당하다"며 손 대표의 발언에 공감했다.

그는 "과거 관행이라지만 상임위원장 몫은 개인 의원에겐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섭단체 몫으로 배분한다. 당연히 교섭단체를 옮기면 원래의 교섭단체 몫이다. 깨끗하게 빈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손 대표를 향해 "차제에 '절 싫다고 나간'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세 분 의원을 보내주는 것이 손 대표의 말씀과 합당하다 생각한다"며 "그 세 의원은 이부자리는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손 대표를 달랠야 하고 그래야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김태흠, 이학재 복당에 "당 남았던 사람은 잘리고..."

"집나간 사람 아무 일 없듯 돌아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온갖 수모 속에 당에 남아 있던 사람은 잘리고 침 뱉고 집나간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 복당을 바라보면서 서글픔과 정치적 회한이 밀려오는 것은 왜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복당 과정에서 밝힌 대로 과연 보수통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살길을 찾기 위해서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 때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죽군 중의 죽군이

있는데..."라며 "매물차게 당을 떠날 때 모습과 발언이 오버랩 되면서 머리를 짓누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속이 좁은 협량의 정치인일까, 정치가 다 이런 것인가"라며 "내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정치인일까,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는 하루"라고 덧붙였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광산구